

한미일 5년만에 정상회담 통해 3국 안보협력 나선다

尹대통령 북핵외교 시동 ...3국 공조·고강도 제재로 압박 나토 회의서 北 비핵화 지지 당부...“자유는 오직 힘으로”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면 백지화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해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각공조를 복원했다. 이어진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안보 전략에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안보 협력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자유

는 오직 힘으로 지켜진다는 평소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 백지화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가운데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한미일 정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연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7차 핵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 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간 조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4일째인 30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이번 순방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체코 정상회담을 연 다. 이번 회담에서는 원자력 발전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한영정상회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잇달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항 출발행사와 함께 마드리드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행 전용기에 몸을 싣는다. /연합뉴스

“내로남불·책임정치 부재 극복할 새 리더십 있어야 국민 신뢰 회복”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 혁신결의문 자기반성 없는 두리모실 발표 수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로남불과 책임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공동 성명 형식의 혁신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고 계파 상성성이 있는 인사가 전당대회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친문진영의 전운철, 홍영표 의원 등이 당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내의 ‘이재명 불가론’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어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상실감에 빠진 지지자와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실망과 분노는 결국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면서 “지금 호남은 민주당에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혁신 방향을 두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과 국민 뜻이 적절히 반영되게 해야 한다”며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 및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대를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타적인 팬덤 정치와 결별하려면 각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혁신결의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혁신 결의문이 전대 구도 및 혁신의 방향을 뒤 흔들만한 폭발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도 저도 아닌 두리모실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혁신 결의문을 두고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견을 보이며 기자회견이 사흘 이상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주의 최저 투표율, 전남의 누더기 공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었다는 점도 이날 혁신결의문의 빛을 바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혁신 선언문은 광주·전남 정치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광주·전남 정치권이 혁신의 동력이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축소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시도” 이병훈 의원 비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남 을)은 지난 30일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치가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고위 공무원 나급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직급을 부이사관급으로 낮추거나 본부 국장급이 겸직하고, 추진단 직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오는 7월31일까지 3년 시한으로 출범했으니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연장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 축소를 명분으로, 한시 조직인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민주,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 정무창 선출 동구의회 의장 후보 김재식·남구 황경아·북구 김형수

광주 지방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인사들이 전반기 의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출범하는 제9대 광주시의회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정무창(광산구2) 의원을 선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22명(전체 23명)은 지난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의원이 같은 재선의 조석호(북구4)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결정된 민주당 후보는 다음 달 2일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짜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경선 또는 합의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민주당 소속

인 5명이 김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이지에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다.

의원 정수가 11명인 남구의회도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원 합의해 3선의 황경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재선의 남호현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정수 20명 중 17명이 민주당 의원인 북구의회도 이날 재선인 김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4선 최무송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서구의회는 정수 13명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의장 후보로 고경애(재선) 의원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부의장 후보는 의원 총회를 조만간 선출기로 했다.

전체 의원 18명 중 14명이 민주당 의원인 광산구의회는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의회는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 9대 의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광주 동구·남구·북구의회는 다음달 4일 9대 의회 첫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이어 광산구의회는 5일, 서구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